最上級靑磁로서 조금도 遜色이 없으며 그 製作도 勿論 象嵌全盛期에 들 것이다。

案內해주신 林鍾錫氏께 깊이 感謝한다。

靑銅佛頭一例

鄭 永 鎬

一九六〇年 八月 慶北月城郡祇林寺에서 同人 黃壽永氏와 靑銅佛頭의 一例를 調査한 바 있는데 비록 佛身과 分離되어 그 關係知見을 喪失한 遺品이나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秀作이며 年代가 高古하게 推定됨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傳聞한 바에 의하면 (僧侶들 談話) 數年前 同寺境에 隣接한 溪谷에서 發見된 바라 하는데 各部에 若干의 傷痕이 보이며 河川에 埋沒되었었던 탓으로 後頭의 圓孔內에는 아직도 砂粒이 들어 있다。全高二〇㎝이며 螺髮은 굵은편인데 頭頂에는 큼직한 半圓의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다。弧形의 兩眉를 따라 그 위에 細線一條를 刻하였고 眉部에 이어진 鼻樑은 오똑하나 下端이 缺損되었으며 口唇도 磨損되었다。눈은 가늘게 떴는데 鳳眼과 이마에 (白毫를 그렸음) 墨彩色이 보이는 것은 最近의 것으로 推定된다。이마는 넓고 兩耳는 길게 늘어졌는데 左便(向左)은 完全하나(耳長九㎝)右便의 耳朶는 缺하였다。(六·二㎝)全面에 彩色은 없으나 靑銹가 보인다。相好는 둥근편이며 豊滿한 양볼에 微笑가 어리어 顔容에 慈悲가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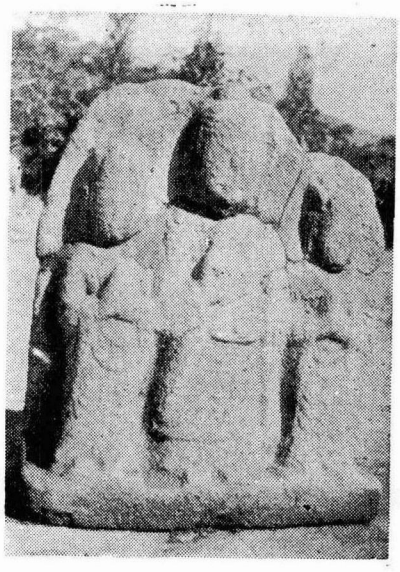
豊麗하며 整齊된 彫法으로 미루어 보아 年代는 羅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 遺品은 一九六二年一月五日 同人 鄭明鎬氏와 함께 再調한 바 있으며 그後 同年七月에 文化財管理局 文應國局長의 周旋으로 移定되어 現在는 國立博物館 慶州分館에 收藏되어 있다。貴重한 資料가 이렇듯 安全하게 保存되었음에 對하여 多幸한 일이라 할 것이다。實測値는 頭(廣一五㎝ 厚一三㎝) 肉髻高四·七㎝ 이마넓이 一〇㎝ 볼넓이 九㎝ 鳳眼 三㎝ 頸部(徑)七·五㎝

公州 萬壽寺의 三尊石佛

金 永 培

鳥致院에서 大田街道인 燕岐郡 錦南面 大平里에서 下車하여 東北間方으로 約 八㎞쯤 山中으로 들어가면 燕岐郡 錦南面 黃龍里가 나서고 俗稱 西大山이라고、하는 山中腹에 萬壽寺라고 하는 조그마한 庵子가 하나 있는데 佛堂의 前庭에 三尊石佛이 保存되어 있어서 簡單히 紹介하여둔다。



이 石佛은 原來 이 庵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西紀一九四〇年 戊辰年에 當時 庵子의 住持였던 徐大師가(現在는死去) 俗稱 쌀안寺라고 하는절에서 옮겨온 것이라 하는데 쌀안寺의 所在地도 모른다